

### 공동체 소식



### 대림 제3주일

하느님, 하느님 백성이 주님의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저희가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 축제를 맞이하게 하소서.

#### 12월 기도지향

- + 정준구 파비아노, 박혜정 카타리나 가정
- + 이우영 가브리엘, 김수연 올리안나 가정

#### 본당 평협회

- 일시 : 11/15(주일) 주일교중미사 후, 본당회관.

#### 자비의 특별 희년 기도안내

- 일시: 첫 번째 기도 - 12/13(주일) 오후3:00부터.

첫기도 다음부터 - 매월 첫 번째 주일 오후3:00부터.

- 장소: the Stone Chapel.

#### 성탄 판공고해성사 안내

- 안내: 각 구역에서 이루어진 판공고해성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미사 전 시간을 이용하여 고해성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성탄전례 연습

- 일정: 12/20(주일) 교중미사 후.

- 대상: 성탄전례와 관련되는 모든 분

#### 2016년도 매일미사책을 주문 바랍니다.

- 안내: 자세한 사항은 전례부 봉사자들에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월별 가정기도지향과 관련된 안내

- 안내: 본당공동체로부터 가정에 필요한 기도를 받고자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구체적인 지향을 알려주시고, 기도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미사전례 독서봉사 신청받습니다.

- 안내: 의욕이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성탄선물 준비 및 나눔 안내

- 선물봉헌일시 : 12/25(금) 오전 11:00 미사 봉헌예절 시

- 내용 : 신자들 각자 10불 미만의 선물과 카드를 준비합니다. 미리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성탄당일 현금 10불로 나눕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93	41	153	91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이번주일	문예나 요안나	안광민 야고보
	정예진 한나	정예찬 미카엘
다음주일	고평원 프란치스코	정병훈 보니파시오
	차민서 임마누엘	문호진 안토니오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금주	최은미 아네스	제2독서
		문석찬 요셉
차주	박혜정 카타리나	백문주 엘리사벳
		정수한 베드로
		김주연 세실리아

#### 애찬 봉사자

금주	박혜정, 정연숙, 장남순
차주	조경희, 김계숙, 조지연

####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차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사도요한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12/06	76명	377불	1560불
정준구, 문석찬, 임수연, 정지현, 이영민, 박재천, 홍순익 박희영 (총 8세대), 2차헌금: 286불.			

대림 제3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5년 12월 13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야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대림 제3주일이며 자선 주일인 오늘 독서와 복음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기뻐하며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권고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와 이웃을 향한 선행의 실천으로, 한 걸음 다가온 성탄을 기쁘게 맞이하고자 준비하면서 경건하게 미사에 참여합시다.

### 그림 묵상

#### 성령과 불의 세례

세례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다음에 오실 분은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므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심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을 겸허하게 고백한 요한의 겸손을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깃들 때 비로소 드러나는 자선의 행위를 이제 행할 때입니다

정미연 소화대레사



제 1 독 서 : 스바니아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3,14-18  
<주님께서 너 때문에 환성을 울리며 기뻐하시리라.>

화 답 송 :  *Fine.*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높으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

○ 위업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하신 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4,4-7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10-18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쉐 마

## 우리가 자비의 얼굴을 지닐 때



오늘은 전례의 전체적 색채가 장미색으로 가득한 장미 주일입니다. 장미색은 기쁨을 상징하는데, 입당송, 본기도, 화답송, 독서와 복음 말씀은 한결같이 ‘기쁨’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대림 3주일에 이처럼 기쁨을 노래하는 이유는 다가올 성탄절과 예수님의 재림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이자 기쁨임을 미리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오늘 로마의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에서는 자비의 성문이 성대하게 열립니다. ‘자비의 얼굴’이라는 화칙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부터 내년 그리스도 왕 대축일까지를 ‘자비의 특별 희년’으로 선포하셨는데, 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 50주년을 맞는 바로 오늘 자비의 성문을 성대하게 여십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이 성문을 열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자비를 세상에 선포하고, 모든 사람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할 수 있게 하자고 초대하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비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자비의 얼굴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워야 한다(루카 6,36)고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실제 보여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자비는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 생활의 토대입니다.

이처럼 자비의 성문이 열리는 오늘 세례자 요한은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3,11)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자신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고 알려 줍니다(3,13-14). 마치 세상에서 자비를 어떻게 베풀어야 할지를 알려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보다 더 큰 인물이 올 것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자신과 달리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가져다줄 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줍니다.

요한에 따르면 그분은 알곡을 당신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십니다(3,16-17). 사실, 이 말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특히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모두 알고 있던 말입니다. 다만, 자신들이 알곡이며, 이방인들이 바로 쭉정이라고 생각하며,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을 불태워버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는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바에 따르면 하나님은 쭉정이 취급받던,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에서 제외될 것으로 여기던 그런 이들을 파멸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이시며, 그들이 돌아올 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의 이 자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며, 하나님 자비의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온 탕자를 맞아들이는 아버지에게 불만을 터트리던 큰 아들처럼(루카 15,11-32), 예수님에게 불만을 터트리며 그분을 죽음으로 내몰아 버립니다. 정말 자비의 얼굴을 지니신 아버지의 얼굴을 닮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종종 발견됩니다. 자비의 성문이 활짝 열리는 오늘 자비가 진정 교회의 기초이자 본질임을 기억합시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었다가 아버지께 돌아와 자비를 입은 이들이었음을 고백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비의 얼굴을 배워 다른 이들에게도 자비를 실천합시다(마태 18,23-35). 이렇게 우리 모두가 자비의 얼굴을 지니게 될 때 세상은 하나님 자비의 얼굴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참으로 기쁨이 흘러넘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장미주일인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다리고 기억해야 할 바입니다.

- 염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 주춧돌

## 용감한 엘리야 예언자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합 왕은 이전의 어떤 임금보다 더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행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특히 아내 이세벨은 이방인들의 신바알을 섬기고 예배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바알을 섬기는 신전과 제단을 세웠습니다. 아합 왕도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예언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무엇이냐 말했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1열왕 16,29-17,7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 지방의 사렙타로 가서 한 과부를 만나면, 그가 음식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뿔감을 줍는 과부를 만나 빵과 물을 좀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 과부는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밖에 없다가 지금 뿔감을 주워다가 마지막 빵 한 덩어리를 만들어 먹고난 뒤 아마도 자신과 아들은 죽을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사렙타 과부에게 어떤 기적을 행했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1열왕 17,8-24

그 후 삼 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가서 아합 왕을 만나거라. 내가 비를 땅에 내려 줄 것이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자, 아합은 다짜고짜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망치는 농이라며 욕박질렀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도 물러서지 않고, 이스라엘을 망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의 신 바알을 받들어 섬긴 아합이라

고 용기 있게 말합니다. 그 후 바알의 많은 예언자와 엘리야는 카르멜 산에서 한판 붙습니다. 그 싸우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1열왕 18,1-40

바알은 땅을 소유하고 풍요와 다산, 그리고 비를 지배하는 가나안의 토착신입니다. 보통 한 백성의 멸망은 외부적 요인뿐 아니라 내부의 윤리와 정신적인 타락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특히 하나님 이외의 신을 믿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나란히 섬기는 데 큰 갈등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믿음을 저버리고 미신과 우상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바알의 예언자들은 결국 엘리야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세상의 평판, 재물, 권력을 욕심내지 않고 용감하게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었던 엘리야는 예언자 중에서도 최고의 예언자였습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 복음 묵상

## 잘 쓰기

가난해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내게 필요한 만큼만  
내가 조금 부족하다 느낄 만큼만

그리고  
다른 이를 조금만 더

딱 그만큼만 더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루카 3,10)

- 임의준 신부(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